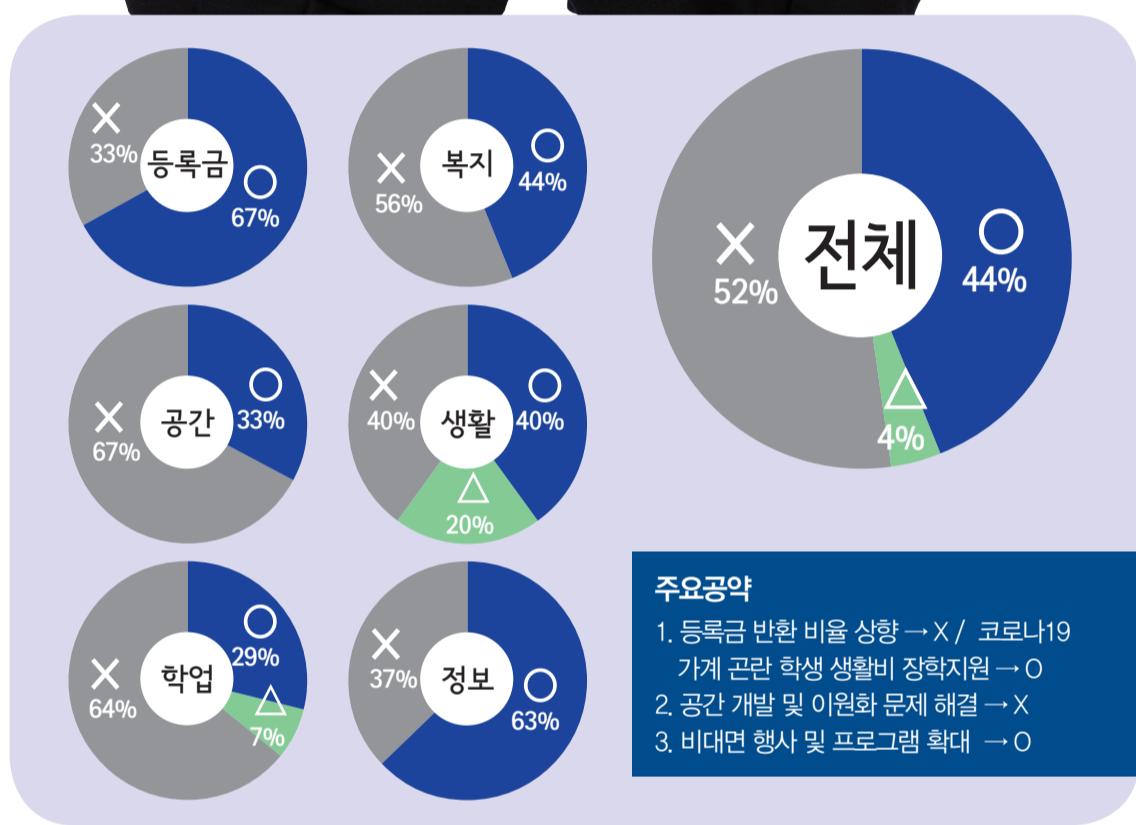


양캠 총학 공약점검

5



는 전체 공약 이행률 70%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캠 총학이 꼽은 핵심 공약 7개 중 5개를 이행한 상태이다. 남은 2개는 이행 중에 있어 임기 말에는 모든 핵심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여학생회 존폐 및 재편에 관한 공론장 형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두 차례 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확대운영위원회의 결로 총여학생회(총여) 해산 결정을 위한 투표를 시행했다. 4년간 궐위 상태였던 총여 존폐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해 총여학생 해산을 이끌어냈다.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총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대안기구 TF팀을 꾸려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 신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특별대표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신설 공약을 이행 중임을 밝혔다.

국제캠 총학 ‘온:ON’은 전체 공

약 이행률 약 44%를 기록했다. 총학은 서울캠과 경희혁신안을 통해 ▲이원화 문제 ▲캠퍼스 공간개발 ▲수강신청 제도 개선 등 공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학교와 적극적인 논의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공약 이행에 대해 국제캠 전완주(일본어학 2015) 총학생회장은 “학생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100% 이행하는 것이 첫 목표지만 학내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공약을 통해 실행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것이 공약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행 완료된 국제캠 총학의 공약 중에선 주변 상권과의 협력적 제휴가 두드러졌다. 앞서 국제캠 총학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학교 주변 상권 지원과 실질적인 학생 복지를 목적으로 “KHU-PAY” 제

휴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총학은 “상생을 목표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할인이나 혜택을 강요하기보다 주변 상권의 제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두 달이라는 짧은 임기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서울캠 남 회장은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고, 충분하지 않은 지점을 보완하고 잘 마무리하는 데에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캠 전 회장은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학 본부 내의 보직이동과 맞물려 공약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뤄질 총학생회 11월 19일, 30일에 진행될 미디어아트 페스티벌과 이스포츠 결선을 문제없이 처리하는 게 큰 목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국제캠 이행 미흡 실행 부족 아쉬워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이동건 기자 ehdri3589@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온:ON’은 전체 48개 공약 중 21개(약 44%)를 이행 또는 수정 이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약은 2개(약 4%)이다. 나머지 25개(약 52%) 공약은 행정 등 기타 사유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학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코로나19 등록금 반환’은 부분적으로 이행됐다. 당초 총학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반환 비율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곤란자의 생활비 장학지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양캠 총학이 대학의 재정 부담에 공감하면서 1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은 가계 곤란자 및 실기, 실습자에 대한 선별적 지급으로 한정됐다. 대신 총학이 주장한 공약 중 ▲장학 수혜 대상자 확대, ▲현금성 지급방식 ▲1인당 수혜 금액 증가가 이뤄지면서 일부의 성과를 거뒀다.

남은 공약인 비대면 수업 시 자치회비 50% 반환은 이행되지 않았다. 국제캠 전완주(일본어학 2015) 총학생회장은 자치회비 반환에 대해 “중운위에서 자치회비 등 예산 사용에 있어 사전, 사후 심의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자치회비를 단대별 비율로 분배해 단대의 자유에 따라 반환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학업 분야에서는 수강신청 관련 공약이 주를 이룬 가운데 14개 공약 중 ▲강의계획서 입력률 향상 ▲세부 채점 기준 공개 등 4개 공약에서 성과를 보였다. 상당 미 실시자 정정 제한 제도 폐지는 논의 중이다. 그러나 ▲강의의 증설 및 수강 TO 확대 ▲수강신청 제도 개선 ▲성적평가 방식 선택권 보장 등 제도적 공약들은 이행되지 않았다. 교강사 채용, 관련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제약, 서울캠과의 협의 부족 등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총학의 설명이다.

이원화 문제 등을 담은 공간 분야의 경우 총학은 경희혁신안을 통해 이원화 문제 개선과 미래과학관 준공 등 캠퍼스 공간개발 실현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학교와의 협의에 이르지 못해 ▲학교-학생 이원화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학생 의견에 따른 공간 개발 실

시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른 공약인 학습 및 휴게 공간 확보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총학은 부총장 및 기조처장의 공백과 실무진들의 교체로 협의가 중단돼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총학은 남은 임기 동안 관련 문제에 대해 학교와의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생활 부문에서 총학은 5개 공약 중 ▲도로 및 통행로 개선 ▲중앙 도서관 열람실 개방시간 확대의 두 개 공약을 이행했다. 총학이 제시한 공유 모빌리티 관련 공약 중 킥보드 거치 구역 확보는 이행 중이나 나머지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학은 헬멧 구비 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유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행사 및 제휴 등을 포함한 학생 복지 공약 9개 중 ▲이스포츠 대회 개최 ▲주변 상권 협력 확대 등을 비롯한 4개의 공약은 이행이 완료됐다. 그러나 앞서 지난 4월 KHUiz-ON과 이스포츠 행사 시행 과정에서 재정 낭비 및 소통 논란이 불어지며 총학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 다른 복지 공약으로 내건 장애학생과 유학생 수업 환경개선 등 관련 3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총학은 “비대면이 장기화되면서 장애학생 등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며 “(지원책이) 대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진행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공지 체계 개선을 담은 정보 부문 공약의 경우 ▲공모전 등 취업 관련 활발한 의견 공유 ▲경희백과 발간 등 5개 공약은 이행 완료됐다. 그러나 ▲경희톡 공지 체계 개선 ▲공식 경희 학생 커뮤니티 수립 등 3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은 “정보 전달 방식을 통합할 플랫폼으로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생각했다”며 “그러나 홈페이지 공식화보단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희톡부터 선택적 정보 구독 등의 방식으로 개선을 도모하도록 선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이후부터 경희톡 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후에 전달받은 게 없는 상황”이라며 “안건으로서 다시 한번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